국제자유도시와 문화

김 현 돈

1. 왜 국제자유도시인가?

국제자유도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약속된 미래인가. 꿈과 환상의 극치인가. 자유 그 자체인가. 일탈과 방종의 표상인가. 지금 제주도가 구상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는 메가리조트 개발 계획과 함께 제주 개발의 새로운 지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그야말로 제주의 미래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우려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까닭은 21세기 제주 미래의 방향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없이, 변화된 세계 경제환경 속에서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외자 유치 전략의 극대화와 '개방화와 자유화의 선봉기지'로서 제주도를 개발한다는 과도한 경제논리에 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환경 보전, 제주인의 정체성과 전통문화 보전 등은 아무래도 경제중심의 논리를 포장하기 위한 궁색한 들러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모델을 제시하여 주도면밀하게 그 타당성을 조사하고 민주적으로 도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려는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다가 최근 발표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업 지시서 기초(안)'은 오는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관광, 비즈니스, 물류, 금융을 포함한 '제주형 친환경적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를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7월 27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

을 보면, 인천 부산 광양 세 곳을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비관세지역으로 지정해 물류 가공 수출입 활동이 자유로운 '자유항 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고, 제주도는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제한된 국제관광자유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제주도의 야심찬 구상은 처음부터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제민일보 1999년 7월 30일자) 국토연구원의 계획대로라면 제주도는 공항, 항만시설, 배후 공업지역, 컨벤션센터 등 열악한 조건을 고려함이 없이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김치국부터 마신 우스운 꼴이 될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구상을 다시 원점에서부터 그 타당성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 점을 전제로 하여 이 글은 국제자유도시가 초래하게 될 삶의 질 변화와 그 문제점을 문화에 치중하여 서술할 것이다. 이 글이 지칭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은 여러 논자들의 대체적인 합의대로 사람과 상품과 자본의 무제한적인 자유 이동을 보장하는 특정지역이다. 따라서 국제자유도시는 외국의 어느 지역에서든 사람과 상품과 자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유입될 수 있도록 국가의 제도적 장벽을 철폐하는 일에 우선 매달릴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제자유도시는 탈규제와 개방화를 부르짖는 신자유주의 논리의 실천적 표현이라 할만하다.

2. 자유와 욕망 그리고 문화정체성

사람 이동의 자유화, 상품 이동의 자유화, 자본 이동의 자유화가 말해주듯이 국제자유도시란 이름에서 풍기는 이미지는 자유로움이다. 자유가 주는 그 해방의 즐거움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적극적 의미에서 자유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그러나 자유의 개념이 내포하는 추상성과 애매모호함 이면에는 일탈과 무규범, 허영과 탐욕, 가치의 상실과 혼돈이라는 부정성이 도사리고 있다.

일찍이 국제자유도시의 전형적 모델이었던 홍콩을 무대로 한 왕가위 감독의 영화 '중경삼림'과 '타락천사'에는 주인이 없는, 아니 주인이 배제된 국제적인 자유도시 홍콩에서 영원히 이방인으로서 뿌리 뽑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의 스산한 방황이 어둡게, 그러나 역설적인 경쾌함으로 펼쳐진다. 삶에 대한 어떠한 목표와 전망도 갖지 못한 젊은이들이 찰나적인 욕망에 몸을 내맡긴 채 하루하루를 덧없이 살아간다. 이들의 파편화된 삶은 주인공들의 응답 없는 독백으로 병치된다. 예술의 고전적인 서사구조가 붕괴되고 시·공간의 파편화 현상이 주인공들의 분열된 의식세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들을 사람도 없고 듣기를 기대하지도 않는 도막난 말들이 공허한 울림이 되어 홍콩의 밤하늘을 음울하게 떠돈다.

주체의 분열은 개인의 통합된 자아를 보증했던 데까르트의 근대적 자아(Cogito), 즉 이성적 주체의 분열을 천명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선언적 규정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자본의 세계화로 요약되는 초국적 자본주의 시대, 신자유주의의 문화적 표현이며 신자유주의의 경제 논리가 전일적으로 관철되는 국제자유도시 홍콩은 서구 금융자본의 헤게모니 지배에 의한 특정 공간의 계획적인 물리적·문화적·상징적 전유(專有)를 가능케 하는 식민화된 공간이다. (Neil Smith, Cindi Katz, 1993) 하버마스의 말대로 현대의 생활세계는 도구적 이성에 의해 총체적으로 식민화되어 있다. 따라서 가장 포스모던한 공간인 홍콩에서 사람들의 식민화된 생활세계가 고독과 불안, 주체의 소외와 분열로 나타난다.

금발의 가발과 검은 선그라스를 쓰고 도시의 밤거리를 배회하기도

하고 아파트의 물건들에게 말을 건네 감정이입을 하면서 실연의 상처를 달래기도 하는가 하면 킬러는 영문도 모른 채 모호한 대상을 향해 마구 총질을 해대고, 심야에 남의 가게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억지로 아이스크림을 먹이고, 머리를 감기는 해괴한 일을 벌이는 이들의 일탈된 '자유' 그 속에 꿈과 욕망이 꿈틀대고 온갖 초국적 자본주의 문화가 뒤엉킨 국제자유도시 홍콩의 불안한 미래가 격심하게 흔들리는 카메라와 광각렌즈로 일그러뜨린 영상이미지의 충격으로 다가온다.

왕가위가 그리는 홍콩의 도시 이미지는 돈을 넣고 원하는 노래를 선곡해 듣는 쥬크박스와 휘황하게 밤하늘 밝히는 코카콜라 상표('전세계의 코카콜라화'는 문화제국주의의 적나라한 표상이다!), 굉음을 내며 밤거리를 질주하는 전철, 쉼 없이 울리는 호출기 소리, 통조림과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들로 채색되어 있다. 이러한 포스트모던한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인간의 만남은 중심과 주변을 오가고 희망과 절망을 오가며 아무런 필연성을 잉태하지 못한다. 연인들의 사랑은 계속 엇갈리는 시선 속에서 스쳐 지나기만 한다. 모든 인간관계는 극도로 개별화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다. 고립된 개인의 내면이 고독과 불안을 껴안은 채 기약 없는 미래를 향해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영위할 뿐이다. 이것은 또한 1997년 7월 1일 중국 반환을 앞 둔 시점에서 어쩌면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유화의 메카 식민도시 홍콩 사람들이 겪는 실존적 방황으로도 읽힐 수 있겠다. 유효기한이 지난 통조림 캔을 사 모으며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주인공의 기이한 행태에서도 이러한 징후는 포착된다.

이와 같이 홍콩이란 한 도시를 배경으로 포스트모던한 초국적자본주의의 삶을 포스트모던하게 보여준 왕가위의 영화에서 우리는 우리가 미구에 겪게될지도 모르는 국제자유도시의 음산한 이미지를 본다. 빠른 커팅으로 편집된 감각적인 화면을 바라보면서 10대의 영상세대

들은 마치 한 편의 뮤직비디오를 감상하는 기분으로 영화에 즐거이 빠져들겠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이 낯선 문화적 충격을 이성적으로 수용할 태세가 되어있지 않다는 데 있다. 사람과 상품과 자본이 아무 거침없이 흘러들어 온다는 것은 생활세계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또 총체적인 생활양식의 변화 곧 문화의 변화를 의미한다.

국제자유도시가 도 당국의 구상대로 정착화 된다면 제주도는 세계문화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우려할만한 일은 홍콩의 예에서 보았듯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마구 유입되는 세계 각국의 외래문화와 전통문화와의 충돌에서 오는 가치관의 혼란과 이에 따른 문화 정체성의 상실에 있을 것이다. 인간이 공동체 내에서 자기를 확인하는 길은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는 데 있다. 그렇다고 상호간에 문화의 개방과 건전한 교류를 막거나 주저해야 할 이유는 없다. 문화쇄국주의와 복고주의는 오히려 문화현상의 지체를 가져와 창조적 문화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상호문화성의 원칙에 따라 자연스런 문화 교류와 접촉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세계를 경험하고 이용하고 지배하는 인간의 사유 자체가 불완전하기에, 인간에 의해 창조된 어떠한 문화도 절대적이거나 보편적일 수 없다. 여기에 문화들 사이의 상호적 관계의 필요성이 있다. 문화들 사이의 상호관계와 상호작용 없이는 문화의 상승적 발전은 불가능하다. 모든 문화들은 사유의 다른 출발점과 생활세계 형성의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인간의 문화는 광범위한 공간과 시간에 걸쳐 계속적인 융합과정 속에서 서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오늘날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 접촉에서 모든 문화들 사이의 갈등과 소외를 제거하고 문화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인류 공동의 보편적 문화와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상호문화성을 확립해야 될 것이다. 상호문화성

은 문화의 차별성과 고립성을 넘어 문화적 합의를 지향하는 것이기에 문화의 세계화주의이기도 하고, 세계문화 속에서의. 그리고 세계문화로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이기도 하다. (김종태, 1998)

더군다나 오늘날 디지털화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전세계를 하나의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시공간의 비약적인 압축을 가져와 문화의 상호 연관성을 증진시킨다. 그러나 무제한적인 문화 접촉과 교류는 문화 정체성의 확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문화의 세계화주의'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여기에 있다. 이것은 자칫 문화의 획일성으로 이어져 창조적 발전을 저해하고 하향 평준화를 가져온다. 문화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연계성에 바탕을 두지 않은 채 일방적인 문화 유입과 그로 인한 문화충돌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저급한 문화 지배가 만연하는 문화의 황폐화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에 극심한 균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 우리가 경계의 고삐를 늦추어선 안될 것은 이른바 상호문화성의 왜곡된 형태인 세계화시대의 문화국제주의이다. 문화국제주의는 문화의 무국적화와 획일적 상업문화의 보편화로 이어지고 결국 문화제국주의로 귀결돼 민족문화 또는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위협한다. 문화국제주의와 문화제국주의는 그 말의 유사성만큼이나 서로 근접해 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관계인 셈이다. 제임스 페트라스는 "정치적 영역에서 문화제국주의는 사람들을 문화적 뿌리와 상호유대의 전통으로부터 떼어놓고, 매번 선전공세에 따라 계속 바뀌어 나가는 대중매체에 의해 창출된 '욕구'로 그것들을 대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 정치적 효과는 개인을 원자화하고 서로 분리시킴으로써 삶들을 전통적 계급과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이반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다. 오늘날 '국제주의'로 위장한 미국과 유럽은 영화나 위성 텔레비전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동원해 제3세계 대중들을 정치·사회적 현실로

부터 부단히 소외시키고 무기력, 무감각하게 만든다. 민족의 정체성은 파괴되고 그 정체성으로부터 실질적인 사회, 경제적 내용은 제거된다. 공동체의 연대를 와해시키기 위해 문화제국주의는 민족 외부의 상징들과의 일치를 의미하는 '현대성'의 물신숭배를 고무한다. 사회적 유대는 개인성의 이름으로 지배되며 개별 인성은 매체의 메시지가 명령하는데 따라서 재형성된다. "이 시대의 커다란 속임수 가운데 하나가 사상과 시장과 운동의 '국제화'라는 관념이다. 연대,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가치들의 모든 형식들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세계화'라든가 '국제화'와 같은 용어를 끌어대는 일이 유행이 되었다. '국제주의'의 가면을 쓰고서 미국과 유럽은, 일상의 삶을 탈정치화 하고 사소화 하도록 쉽게 유도하는 문화형식들의 주요 수출업자가 되었다."(J. Petras, 1993)

문화국제주의란 허울좋은 이름은 문화제국주의로 탈바꿈되어 서구 강대국이 약소국의 개인적, 민족적 연대와 공동체를 유린하고 정체성을 파괴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다는 말이다. 제주인들은 유사이래 전통적으로 공동체의식의 미덕을 지녀왔다. 이것은 고대의 신화적 세계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발적, 보편적인 지역의 정서였고 제주인이 제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튼튼한 정신적 고리이자 지주였다. 제주인들은 역사적으로 이들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외부 세력(그것이 중앙의 권력이든, 중앙 권력과 결탁한 어떤 세력이든, 순수한 외부 세력이든 간에)에 대항해 싸웠다. 방성칠의 난이나 이재수의 난, 세화리 잠녀항쟁, 4·3항쟁은 모두 이런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인간의 내면적 삶의 질에 대한 배려와 미래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 없이 위로부터 주어진 관광개발 사업의 와중에서 전통 가치와 의식이 급속히 와해되면서 제주인은 문화정체성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것이다. 즉 60년대 이전까지 민속과 무속 등 전통적

인 생활양식과 민간신앙 등에 비교적 잘 보존되어 온 문화정체성은 60년대 이후 관광개발 사업이 정부 주도로 본격화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한 관광산업과 감귤산업으로 인해 상대적인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도 한편으론 자연환경의 파괴, 외지인에 의한 땅 투기와 점유, 전통적인 문화와 가치 상실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4·3에 대한 정신적 외상이 개인 및 집단 정체성의 위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는 외지인과 외지문화를 바라보는 이중적 의식(선망과 배타감, 우월감과 열등감)과 각종 경조사에 대한 지나친 허례허식(겹부조, 얼굴 내밀기 등)에서 잘 나타나 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유독 제주도에서 지역정신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이유도 이러한 집단 정체성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문화의 무제한적 유입은 그나마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전통가치와 전통문화를 급속히 와해하고 도민들의 공동체적 연대를 해체시켜 나갈 것이다. 국제자유도시의 구상이 사람 이동의 자유화를 보장함으로써 외국자본에 투자유인을 주겠다는 것이라면, 국제적인 투기꾼과 국제적인 마약 밀수 밀매 업자, 국제적인 도박꾼, 국제적인 매매춘 업자(기생관광업자)들, 국제 건달들, 국제적인 범죄조직들이 '자유도시'에 득시글거릴 것이고 이러한 국제적 규모의 업자들과 내국인, 도민들과의 연계·결탁으로 정서적 환경은 혼탁해질 것이다. 이러한 혼탁한 정서적 환경 속에 우리의 미래를 투자할 것인가.

오픈 카지노장 건설도 도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한풀 꺾여 있지만 아직도 메가 리조트의 달콤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도 당국의 입장에서 언제 또다시 고개를 들고 나타날지 모를 일이다. 마약과 도박, 매매춘 등은 인간의 영혼을 담보로 한 악덕 정신범죄이다.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삶의 토대가 척박한 곳, 삶의 지표와 전망이 불투명한 곳에서 인간은 주체할 수 없는 정신의 공허함을 보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로폰을 맞고 도박에 탐닉한다. 한 순간의 배팅, 한 순간의 열락(悅樂)에 자신의 현존을 저당 잡힌다.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의 선진 국제자유도시가 이런 범죄 조직의 국제적 활동 거점이라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제주인의 정체성과 전통문화를 보전하면서 '제주형 친환경적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는 제주도의 구상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이며 형용의 모순에 불과하다. 국제자유도시는 그 앞에 어떠한 수식어도 용납될 수 없는 보편적 개념이다. 제주형 국제자유도시와 홍콩형 국제자유도시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만약 가능하다고 강변한다면 그것은 마치 유신시대에 생겨난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만큼이나 희화적인 말이 될 것이다.

정체성, 전통문화, 청정환경의 보전과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다. 즉 제주의 정체성과 전통문화, 청정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철회되어야 마땅하고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또한 정체성과 전통문화, 청정환경은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은 없는 법이다. 국제 초과이윤 달성을 목표로 부나비처럼 몰려드는 외국 자본이 인간 내면의 가치와 환경 보전에 고심할 리 없고, 또 이들의 자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엄격한 환경 규제와 환경영향 평가, 외국문화의 선별 유입은 유보되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람이나 문화나 환경이나 모두 자본의 논리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다.

3. 국제문화도시로

한 지역 또는 한 나라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가치와 삶의 조화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음을 뜻한다. 국제자유도시라는 세계의 자본에 의해 총체적으로 식민화된 공간 속에서 식민화된 생활세계는 개인의 자아 정체성을 끊임없이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속한 집단의 문화 정체성을 송두리째 거덜내고야 말 것이다. 건강한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선 주체를 먼저 세우고 반성적, 자각적인 삶을 통해 주체의 미적 기준에 따라 외래 문화를 여과해서 수용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역으로 외국 자본가들의 입맛과 기호에 맞춰 주체의 시각과 취미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면, '자유'가 그것을 강제한다면 머지않아 국제자유도시는 온갖 싸구려 저질 문화의 국제적 하치장이 될 것이고 국제적인 욕망의 배설구가 될 것이다. 그 도시의 '원주민'들은 악취 나는 쓰레기더미를 치우며 시나브로 존재와 삶의 기반을 잃어 갈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의 최악의 밑그림이다. 부디 왕가위 감독이 제주도를 배경으로 '타락천사' 제2편을 찍지 않았으면 한다.

부질없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아까운 돈과 열정을 소진하지 말고 그럴 여유가 있다면 상세한 오름지도라도 만들어 공항과 여객선 터미널에 비치하면 좋지 않을까. 자연의 아름다움과 식생과 생태계를 모두 파괴하는 도로 확장과 개량을 중단하고 그 길에 사람이 편히 걸어 다닐 수 있게 보행로나 정비하면 좋지 않을까. 시각의 즐거움을 차단하는 전신주와 송전탑을 걷어치우고 전선은 모두 땅 속에 묻으면 좋지 않을까. 미술관이나 음악당, 4·3역사기념관을 어디에 어떻게 지을지를 놓고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사람을 뒷전에 놓고 사람의 삶을 돌보지 않는 국제자유도시 구상을 그만두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향기 있는 삶의 문화를 꽃피울 국제문화도시를 구상하면 어떨까.